

“예측 어려운 장마철 재해...안전 위해 점검 또 점검”

●집중호우 대비 광주남구 ‘하수암거 현장 점검’

백운광장 상습 침수구역에 2020년 인공수로 522m 설치 전문가·주민 참여 시설·지장물 점검...모래마대 1천여개 비치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3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원, 올해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수시설물 현장 점검을 앞두고 전문가와 주민·관계자들이 상황 설명에 눈과 귀를 집중했다.

이번 점검은 백운광장 일원 하수암거 내부에 직접 들어가 현장을 살피고 침수 대비 장비 및 자재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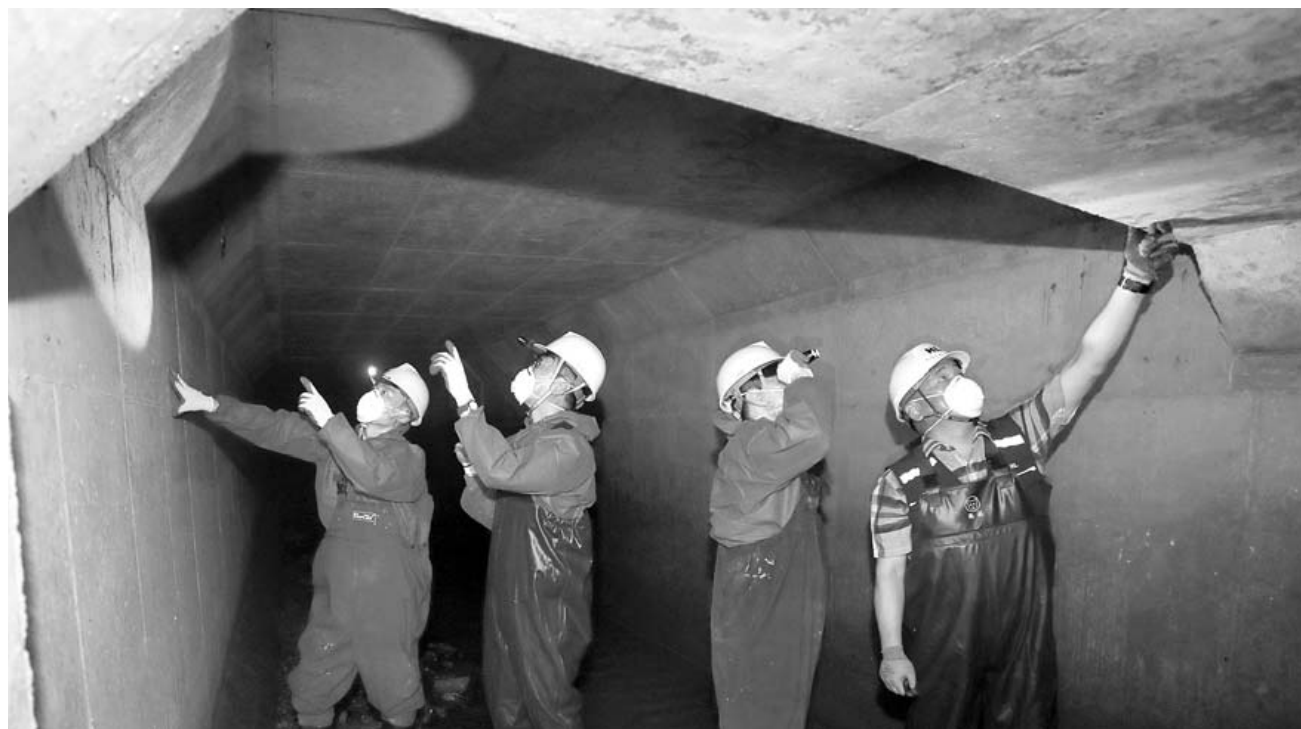
김병내 남구청장, 노옥환 안전도시국장, 김광택 도시철도 4공구 소장 등 관계자와 전문가, 백운2동·봉선1동 주민 15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2020년 설치된 백운광장 상습 침수구역의

하수암거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수암거는 지하에 매설한 관·개수로 또는 밀폐형 덮개가 있는 인공수로다.

이 하수암거는 지난 2018년 8월 백운광장과 주월동 일부 지역에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려 총 74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 이후 동일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같은 해 9월 시설계획이 실시됐고 광주 남구 백운2동 모아산부인관에서 봉선1동 웨슬리 신협까지 총 522m의 길이로 2020년 준공됐다.

현장 점검을 위해 진·출입 장소에 모인 40여명은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공사 및 백운광장 주변 하수 시설물 보고를 청취한 뒤 일부 인원이 하수암거에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13일 광주남구 백운광장 하수암거에서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남구청 공무원들과 지하철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들어갔다. 방수복·마스크·장갑·헬멧 등 장비를

꼼꼼이 착용한 이들은 1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구멍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한 명씩 지하로 내려갔으며 안전봉을 들고 안내하는 전문가를 따라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내부 벽 ▲천장 등 하수박스 균열 ▲누수방해 퇴적물 등을 꼼꼼히 살폈다.

하수암거 점검에 참여한 김분순(65·여) 봉선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하수암거 설치 이전에는 이 일대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기도 했다”며 “주민들을 대표해 현장에 직접 나와 관로 내부를 확인하니 안정감이 느껴지고, 내부 점검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수암거 점검 후 전문가 등은 인근 침수지역 내 빗물받이 준설 상태와 백운광장 주변에 설치된 1천500개의 모래마대 준비상태 등도 살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장마철은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먹튀’...광주도 주의보

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2021년 남구서도 유사 사례

한국소비자원 ‘예방책, 단기·신용카드 할부 결제’ 당부

최근 전국에 28개 지점을 보유한 유명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과거 광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 서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을 낸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 A 업체가 일제히 폐업했다. 당시 A 업체는 “전 지점이 모두 매각됐다”며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수 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1

시 기준 피해를 호소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1천명이 넘는 이들이 모였다.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인 가운데 PT(Personal Training)를 등록한 회원의 경우 많게는 수 백만원을 ‘먹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개 지점 가운데 광주·전남 소재는 없어 지역 내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폐업 후 니몰라리’하는 사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에서도 지난 2021년 8월 A 업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남구 소재 B 헬스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전 날 운영 중단을 통보했고 피해 보상 안내도 없는 일방적인 공지에 회원 수 백명은 피해자 모임을 결성,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두 사례 모두 폐업 직전까지 ‘할인 행사’를 미끼로 신규 회원 모집과 기존 고객 재등록 등을 받아 피해자들이 더욱 공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 보상은 긴 법적 소송을 통해 이뤄지는데, 해당 업

체 측이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책으로 ‘단기 계약’과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 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할부 결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 행사를 위해선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 요청 이유 등의 내용증명을 신용카드사에 보내야 한다. /안재영기자

보육원 친구 휴대폰 훔쳐 ‘BJ에 별풍선’ 20대 징역형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의 휴대폰화와 개인정보를 훔쳐 1천500여만원을 가로채고,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하는 데 당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북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폰을 훔쳐 같은 해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

거나 온라인으로 무단 결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온라인 방송 BJ에 300여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물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B씨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와 성인이 돼 연락이 된 기회를 노려 휴대폰을 훔치고 소액 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오복기자

편의점서 흥기 위협 현금 빼앗아 달아난 20대 검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흥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

강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동구 계림동 한 편의점에 침입해 흥기를 든 채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위

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인 척 위장하고 편의점에 들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전날 오후 6시께 북구 신안동 한 PC방

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빚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혐의를 더 조사할 방침이다. /안태호기자

‘질은 안개’ 65명 탄 여객선-어선 충돌...인명 피해 없어

질게 긴 안개로 인해 신안군 해상에서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목포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분께 신안군 안좌도 인근 해상에서 466급 여객선 A호와 206급 어선 B호가 충돌했다.

당시 여객선 A호에는 승객 61명과

선원 4명 등 65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 사고로 어선 B호의 일부 선체와 닻이 파손됐다. 인명피해나 해상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객선과 어선 선장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목포해경은 안개로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정해선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